



농식품부 장관, 한식대축제 방문해 관람객과 한식의 맛과 멋 즐겨

- 우리 농산물과 전통식품의 우수성 홍보, 식품명인·한식기업 관계자 격려
- 외국인 관람객과 바람떡 만들기 등 한식 체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24일(토) 오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 한식대축제(HANSIK FESTA)’를 방문해 국민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우리 농산물과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한식을 함께 만들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2026 한식대축제’는 법정기념일로 처음 맞이하는 ‘한식의 날(10월 24일)’을 기념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일대에서 열리며, 한식 체험프로그램과 조리 시연, 한식 기업 홍보관, 한식당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송 장관은 방문하는 관람객과 함께 한식의 문화적 가치를 나누고, 한식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식품명인과 한식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한식대축제에 참여한 이하연 김치 명인과 고화순 나물 명인의 부스를 방문해 김치와 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전통의 맛과 기술을 계승해 온 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김치와 나물 등 우리 식탁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전통 음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강조하며, 관람객들에게 제품을 직접 나눠주면서 우리 전통 식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어 한식 쿠킹클래스에서는 외국인 관람객들과 함께 전통 떡인 ‘바람떡’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한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선보이는 ‘쿠엔즈버킷’에서는 한식 특유의 풍미를 만드는 우리 식재료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 떡을 선보이는 ‘설봄’ 부스에서는 전통주를 활용한 술떡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한식 디저트를 체험하며,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취향에 맞춰 변화하는 한식의 모습을 확인했다. CJ제일제당 홍보부스에서는 만두와 김치 등 세계인의 식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제품을 살펴보았다.

이후 송 장관은 국산 신선 농산물과 전통주, 식품명인 홍보부스를 찾아 우리 농산물과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살펴보고, 관람객들에게 샤인머스캣과 방울 토마토 등을 직접 소개하며 시식을 권했다.

송 장관은 “첫 한식의 날을 맞아 국민과 외국인 관람객들이 함께 한식을 만들고 즐기는 모습이 뜻깊다”라며, “오랜 세월 한식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온 식품명인들과 창의적인 시도로 한식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식은 우리 땅의 자연과 계절,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한식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한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세계인들도 한식을 직접 만들고 즐기며 우리 음식문화에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151)
		담당자	사무관	남경원	(044-201-2155)

